

민실위 보고서

2012년 11월 16일(금)

정권 눈치에 특종을 날린 간부들은 당장 물러나라!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옵고, 그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오리잇가...” <홍길동 傳>에서...

“그 특종을 특종이라 못하고, 단독을 단독이라 못하니, 어찌 언론사라 하오리까...” <MBC 傳?>에서...

앵커 ‘단독 보도’ 소개도 없이...

그제(14일) 밤 MBC 법조 출입기자들의 ‘특종’이 또 전파를 탔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다. ‘단독취재’라는 타이틀을 리포트 앞에 붙이지도, 앵커가 ‘단독 보도’라고 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독 취재한 내용은 다른 팩트들과 뒤섞여 짧게 나갔다. 시청자 입장에서 본다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기 힘들었을 것이다. 특종 기사의 파장을 키우는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뉴스를 편집해도 모자랄 판에, 파장을 줄이는데 급급했던 모양새이다.

무슨 내용에 대한 특종 이길래? 역시나 현 정권과 여권에 부담스러운 보도다.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불법 증여 의혹과 관련된 취재다. 내곡동 사저 특검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의 아파트 전세자금 6억 4천만 원에 대해서도 증여 의혹이 있다고 보고 수사했다’는 것이다. 내곡동 사저 문제와는 또 다른 큰 의혹이다.

‘내곡동 사저’와는 또 다른 ‘이시형 전세자금’ 의혹

내곡동 사저 특검이 끝내 밝혀내지 못한 것이 바로 부지 매입 자금의 출처이다. 이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 부터 빌렸다는 현금 6억 원을 말하는 것이다. 특검과 언론의 관심이 자금의 출처에 쏠린 이유는 ‘혹시 이 돈이 검은 돈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으로부터 출발한다.

마찬가지로 이시형씨의 전세자금 6억 4천만 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더구나 만약 이 전세자금마저 불법 증여된 것으로 확인돼, 총 추정 세액이 5억 원을 넘길 경우 이명박 대통령 일가가 형사 처벌될 수도 있다. 그야 말로 현직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짓고, 대선의 판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사안인 것이다.

특검은 이에 대한 단서를 잡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지만, 수사기간 제한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특검은 이 때문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청와대는 거부했다. 수사기간 연장을 두고 청와대와 특검이 충돌한 핵심 이유가 사실은 이 ‘대통령 아들의 전세자금 문제’ 때문이었다. MBC 법조 출입 기자들은 이 사실을 언론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취재했고, 보도 며칠 전 이를 미리 오정환 사회1부장에게 보고했었다.

분량 줄고, 논점은 흐려지고...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단독 취재는 정작 MBC 내부에서 ‘서자’ 취급을 받았다. 법조팀을 거쳤던 기자들은 ‘이런 정도의 단독 취재이면 한 쪽이나 두 쪽으로 크게 다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오 부장은 ‘남은 의혹들’이라는 제목으로 특종인 ‘전세자금 의혹’과 다른 기자들도 다 쓸 수 있는 ‘내곡동 사저 자금 출처 의혹’을 함께 묶어서 쓰라고 지시했다. 또 ‘아파트 전

세자금’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청와대의 반론도 달아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자금’ 의혹에 대한 보도 분량은 자연스럽게 줄게 됐다.



부장이 기사를 고치는 과정에서 어휘와 표현도 흐리멍덩하게 변했다. 애초 부장이 고치기 전 기사에는 “전세자금 6억 4천만 원이 청와대에서 나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부장은 이를 “전세 6억 4천만 원에 계약한 강남의 한 아파트를 확인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라고 바꿨다. ‘청와대’라는 핵심 단어를 뺀 것이다.

또 “김윤옥 여사의 최측근 설 모씨”라는 표현은 “김윤옥 여사의 측근인 설 모씨”로 바뀌었다. 설씨(58)는 오랜 세월 김 여사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로 일해와 김 여사의 비밀을 낱알이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러니 ‘최측근’이라는 단어를 굳이 ‘측근’이라고 바꿀 이유가 없다. ‘청와대 눈치 보기’가 아니라면 말이다.

부장 수정 전	부장 수정 후
전세자금 6억 4천만 원이 청와대 에서 나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	전세 6억 4천만 원에 계약한 강남의 한 아파트를 확인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
김윤옥 여사의 최측근 설 모씨	김윤옥 여사의 측근인 설 모씨

연이은 특검 수사 특종, 연이은 특종 축소...

결국 법조팀 기자들의 ‘빛나는 특종’은 시청자들 눈에는 별거 아닌 그저 그런 기사로 전락했다. 그리고 어제 같은 내용을 타 언론이 보도했고, 누리꾼들의 칭송은 온전히 ‘타 언론’의 몫이 됐다. 오늘은 주요 신문들이 1면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하지만 ‘특종 축소’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기자회 비대위 특보>가 밝혔듯이, 내곡동 특검 수사와 관련된 특종은 항상 ‘서자’ 취급을 받았다.

‘단독’, ‘집중’, ‘플러스’, ‘심층’ 등 각종 타이틀을 남발하면서도 굳이 내곡동 사저 관련 특종 보도에 대해서는 타이틀을 잘 붙이지 않았다. 또 ‘내곡동 부지 매매 계약서 원본 파기’, ‘북비 1천 1백만 원의 출처는 경호처 특수활동비 금고’, ‘서면진술서 총무비서관이 대필’ 등 한 쪽씩 따로 특종 보도가 가능한 취재 내용들도 평범한 수사 속보 리포트들 속에 슬쩍슬쩍 끼워져 전파를 탔다.

기자가 취재를 해 왔는데도 기사를 못 쓰면, 취재원은 그 기사를 알보기 시작한다. 그럼 그 기자는 특종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MBC 간부들은 이런 상황을 조장하고 즐기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이 있기는 한 것인가?